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대기오염방지법 개정 시행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후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하여 배출총량규제와 오염물 배출 인허가를 시행하는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중점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연합 방지·통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시급 이상의 환경 주무부처가 주요 오염물 배출 기업명부를 작성하여 전사회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전사회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천진 등 12개 도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설립

국무원은 지난 1월 12일에 「천진 등 12개 도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설립 승인 의견」을 발표하여 천진, 상해, 중경, 합비, 정주, 광주, 성도, 대련, 녕파, 청도, 심천, 소주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무원은 중국 항주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참고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국무원은 이 의견에서 관련 부처와 성급 정부가 종합시범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정부의 관리와 기업의 자율을 결합'하는 등의 정부의 운영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물권법 사법해석 발표, 3월 1일부터 시행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월 23일에 「물권법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I)」(이하 '물권법 사법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물권법 사법해석'은 그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에 충실히 하여 재판 실

무에서 제기되어 온 핫이슈, 난제를 대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물권법 해석'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 3월 10일부터 시행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월 14일에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하였고,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분 참여를 한 기업은 인터넷출판서비스업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인 내자기업의 경우에도 인터넷출판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별도의 <인터넷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인터넷출판서비스 기관에 대하여 연도감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출판물 중 온라인게임은 온라인 상으로 출판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성급 출판 주무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심사에 통과되면 다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2차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